

# 교회의 꿈이자 자부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

02/02/2025

여전히 마음은 새해 첫날 같은데 한 달이 훌쩍 지나 벌써 2월입니다. 1월은 여러 사건사고가 있었습니다. LA에서 일어난 산불이 모두를 두렵게 했고, 미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며 보이는 모습들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으며, 1월 29일 워싱턴 DC 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기와 군용 헬기 충돌로 67명 전원 사망한 사건은 우리의 일상에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2025년 희망과 함께 시작했지만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은 상황과 마주하며 이렇게 예년과 같이 새해도 시간이 흘러가는 것 아닌가 생각하며, 전도서 1장 9절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훗날에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일어났던 일이 훗날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새 것이란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일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며 쾌락과 성공을 좇아간 솔로몬은 노년에 자신의 삶이 무의미했다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한 것이 전도서 1장 9절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보다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았던 바울은 자신의 삶이 복되다 생각하며, 또한 일상 속에서 늘 새로움을 경험하며 고린도후

서 5장 17절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나 환경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어떤 마음으로 시간과 환경을 마주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만끽하게 합니다.

우리 한울림교회는 전도와 부흥의 원년으로 2025년을 꿈꾸며 새로워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건과 상황이 허락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새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영혼전도>에 몰입하며, 목장 모임을 진정한 가정교회로 세워가 고자 합니다. 또한 친교 식사 준비도 목장별로 섬기며 변화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금년 “2025년 한 해만 목회하듯이”라는 각오로 사역하려고 합니다. 이 말은 한 해만 하고 말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장된 시간은 없다는 절박함으로 사역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음에 하면 되겠지’라는 방심은 금물입니다. 올해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각오를 가져야 합니다. 한울림교회는 2025년 반드시 변화해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전도에 불을 붙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5년 우리의 꿈이자 자부심이 되도록, 또 갈망하고, 또 열망하고, 거듭 소망하고 염원하며 나아가야 합니다.